

#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혁준, 최윤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yuk-Jun Moon, Yun-Hee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30명에게 설문을 의뢰하였으며 이 중 210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중 계획수립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중 문제해결 요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평가적 지지는 직업정보수집, 목표 설정, 계획수립, 자기평가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10 university students in B City, Korea. The students completed the study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ffected the planning factors amo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terial and social support affected the problem-solving factors, and appraisal support affected job information collection, goal selection, planning, and self-evaluation factor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social relationships and support are essential for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programs to address such social relationships.

**Keywords** : Parenting Behavi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ppraisal Support

### 1. 서론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있으며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위

한 행동적 준비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고 있다[1,2]. 진로결정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경험의 한계,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경기

본 연구는 202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Corresponding Author : Yun-Hee Choi(Catholic.Univ.)

email: eunice@catholic.ac.kr

Received June 7,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Revised July 18,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침체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는 학교에서 직업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불안의 요인이 된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모기업에서 대학생 7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취업이 71.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유 없는 우울감, 만성 피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는 2020년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4].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강박증 등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가족문제와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탐색하며 전문적 지식을 쌓아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작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대학재학 기간을 취업 준비로 불안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진로결정효능감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의 효능감 이론[5]에서 파생된 것으로 Hackett와 Betz[6]는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분야에 적용하여 진로결정효능감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스스로의 자신감과 주도성은 진로 준비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높은 진로결정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진로준비행동으로 드러나며 사회·인지적 자기기술의 개발, 진로의 선택, 진로결정과 지속적인 계획추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7,8].

Lent와 Brown[9]은 일 만족모형(model of work satisfaction)에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환경적, 행동적, 인지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기질, 성격, 성별, 건강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다. 행동적 요인으로는 목표와 활동, 인지적 특성으로는 효능감과 결과 기대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Lent, Brown과 Hackett[10]는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개인적 요인에 치중되어 이루어졌으므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한국의 문화는 관계가 중요하게 규정되는 특성이 있

어 관계가 주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부모와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과 사회 적응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과 가르침을 주는 행동이다[11].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효능감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12,13]. Suh[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문화가 자녀의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관계적 맥락으로 양육행동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15] 대학생의 발달 과업을 완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가 '성공과 지지를 바탕으로 결정함'이라는 Lim[17]의 연구 결과와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중단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18].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율적이거나 통제적으로 단순 구분되어 연구되었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하위 요인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지지의 요인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진로결정효능감과 하위요인별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으로써의 부모와 중요한 타인인 사회적 관계가 성인이 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봄으로써 대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포된 230부의 설문지 중 22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12부를 제외하고 21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4명(30.5%), 여학생이 146명(69.5%)이며 학년별 구분으로는 1학년 127명(60.5%), 2학년 38명(18.1%), 3학년 19명(9.0%), 4학년 26명(12.4%)으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N=210)

Spec.	n	%	
Gender	Male	64	30.5
	Female	146	69.5
Grade	1	127	60.5
	2	38	18.1
	3	19	9.0
	4	26	12.4
All	210	100.0	

### 2.2 연구도구

#### 2.2.1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척도(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하위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각각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수거 후 하위요인의 평균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점수가 낮아 변별력이 없는 학대와 방치는 제외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감독 .79, 합리적 설명 .82, 비밀관성 .69, 과잉기대 .85, 과잉간섭 .84, 애정 .86으로 나타났다.

#### 2.2.2 사회적 지지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

지원[1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20]가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보적 지지 .89, 정서적 지지 .90, 물질적 지지 .71, 평가적 지지 .83으로 나타났다.

#### 2.2.3 진로결정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21]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은진[2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Betz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23] 직업정보수집은 관심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설정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고, 계획수립은 진학,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을 말한다. 문제해결은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며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직업정보수집 .68, 목표설정 .76, 계획수립 .76, 문제해결 .77, 자기평가 .74로 나타났다.

### 2.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을 측정할 도구에 대해 대학생 5인에 의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제 이해에 대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결정효능감 중 직업정보수집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감독( $r=.20, p<.01$ )과 애정( $r=.15, p<.05$ ),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 $r=.30, p<.001$ ), 정서적 지지( $r=.27, p<.001$ ), 물질적 지지( $r=.26, p<.001$ ), 평가적 지지( $r=.32, p<.001$ )와 정적 상관이 있고, 진로결정효능감 중 목표설정은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 지지( $r=.30, p<.001$ ), 정서적 지지( $r=.26, p<.001$ ), 물질적 지지( $r=.29, p<.001$ ), 평가적 지지( $r=.34, p<.001$ )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진로결정효능감 중 계획수립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양육행동( $r=.15, p<.05$ ),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 $r=.31, p<.001$ ), 정서적 지지( $r=.26, p<.001$ ), 물질적 지지( $r=.27, p<.001$ ), 평가적 지지( $r=.34, p<.001$ )와 정적 상관이 있고, 진로결정효능감 중 문제해결은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 $r=.27, p<.001$ ), 정서적 지지( $r=.27, p<.001$ ), 물질적 지지( $r=.34, p<.001$ ), 평가적 지지( $r=.31, p<.001$ )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진로결정효능감 중 자기평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 $r=-.16, p<.05$ )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애정적 양육행동( $r=.20, p<.01$ ),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 $r=.40, p<.001$ ), 정서적 지지( $r=.36, p<.001$ ), 물질적 지지( $r=.35, p<.001$ ), 평가적 지지( $r=.45, p<.001$ )와는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어머니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했다고 지각하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어머니로부터 과잉간섭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그룹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 중 자기 평가에 대한 효능감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 3.2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한 결과, VIF는 10 이하(1.33~6.67), TOL은 0.1 이상(.15~.75)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중 직업정보수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4%로 나타났고( $F=3.13, p<.001$ ),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 $\beta=.30, p<.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자신의 행위

Table 2. Correlation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social,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Mother's Parenting Behavior	2	.27***	1												
	3	-.13	-.40***	1											
	4	-.08	-.19**	.46***	1										
	5	-.07	-.30***	.50***	.58***	1									
	6	.41***	.63***	-.45***	-.30***	-.38**	1								
Social Support	7	.38***	.38***	-.23**	-.13	-.15*	.51***	1							
	8	.43***	.35***	-.27***	-.12	-.22**	.55***	.87***	1						
	9	.34***	.30***	-.27***	-.12	-.22**	.49***	.81***	.84***	1					
	10	.39***	.37***	-.29***	-.18**	-.25***	.57***	.82***	.85***	.80***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1	.20**	.08	-.01	-.76	-.08	.15*	.30***	.27***	.26***	.32***	1			
	12	.10	.06	.03	.00	-.09	.10	.30***	.26***	.29***	.34***	.65***	1		
	13	.11	-.01	.06	.02	-.05	.15*	.31***	.26***	.27***	.34***	.70***	.72***	1	
	14	.10	.02	-.07	-.01	-.12	.11	.28***	.27***	.34***	.31***	.54***	.62***	.66***	1
	15	.11	.08	-.08	-.10	-.16*	.20**	.40***	.36***	.35***	.45***	.62***	.75***	.73***	.64***

1.monitoring 2.reasoning 3.inconsistency 4.over-expectation 5.intrusiveness 6.affection 7.informational 8.emotional 9.material support 10.appraisal support 11.job information collection 12.goal selection 13.planning 14.problem solving 15.self-evaluation  
\*\*\* $p<.001$ , \*\* $p<.01$ , \* $p<.05$

를 인정해 주고 자기 평가와 관련된 평가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은 학생일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에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job information collection amo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job information collection	
	B	$\beta$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13
	reasoning	-.02
	inconsistency	.13
	over-expectation	-.04
	intrusiveness	-.06
	affection	-.07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22
	emotional	-.16
	material	.00
	appraisal	.35
F	3.13***	
R <sup>2</sup>	.14	
adj. R <sup>2</sup>	.09	

\*\*\* $p < .001$ , \*\* $p < .05$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중 목표설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6%로 나타났고( $F=3.75, p < .001$ ),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 $\beta=.39, p < .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진로 결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goal selection amo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goal selection	
	B	$\beta$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00
	reasoning	-.02
	inconsistency	.15
	over-expectation	.06
	intrusiveness	-.13
	affection	-.11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24
	emotional	-.29
	material	-.10
	appraisal	.47
F	3.75***	
R <sup>2</sup>	.16	
adj. R <sup>2</sup>	.12	

\*\*\* $p < .001$ , \*\* $p < .01$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중 계획수립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18%로 나타났고( $F=4.43, p < .001$ ),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 $\beta=-.19, p < .05$ )과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 $\beta=.41, p < .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어머니로부터 합리적 설명의 양육행동을 지원받은 그룹에서는 목표설정을 위한 효능감의 정도가 낮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받을수록 목표설정을 위해 높은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planning amo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planning	
	B	$\beta$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01
	reasoning	-.20
	inconsistency	.17
	over-expectation	.09
	intrusiveness	-.11
	affection	.13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34
	emotional	-.36
	material	.00
	appraisal	.52
F	4.43***	
R <sup>2</sup>	.18	
adj. R <sup>2</sup>	.14	

\*\*\* $p < .001$ , \*\* $p < .01$ , \* $p < .05$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중 문제해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Table 6.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problem solving amo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problem solving	
	B	$\beta$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03
	reasoning	-.13
	inconsistency	-.01
	over-expectation	.10
	intrusiveness	-.13
	affection	-.06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13
	emotional	-.25
	material	.35
	appraisal	.25
F	3.41***	
R <sup>2</sup>	.15	
adj. R <sup>2</sup>	.10	

\*\*\* $p < .001$ , \*\* $p < .01$

대한 설명력은 15%로 나타났고( $F=3.41, p<.001$ ),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 $\beta=.29, p<.05$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을 대신해 주거나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물질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 중 자기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24%로 나타났고( $F=6.18, p<.001$ ),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 $\beta=.49, p<.0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사회적 관계들이 있을 때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평가를 할 때에도 높은 효능감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self-evaluation among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N=210)

Variable	self-evaluation		
	B	$\beta$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05	-.04
	reasoning	-.11	-.12
	inconsistency	.05	-.05
	over-expectation	.01	.01
	intrusiveness	-.11	-.13
	affection	-.03	-.03
Social Support	informational	.30	.29
	emotional	-.21	-.20
	material	-.06	-.06
	appraisal	.54	.49***
F	6.18***		
R <sup>2</sup>	.24		
adj. R <sup>2</sup>	.20		

\*\*\*  $p<.001$

#### 4. 논의 및 결론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 양육행동을 했다고 지각하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어머니로부터 과잉간섭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그룹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 중 자기평가에 대한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4]와 맥을 같이 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가 건강한 환경일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25]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모든 변인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반면, 양육행동 중 애정과 과잉간섭 외 다른 변인들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지만[2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알아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관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지지에서만 강한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진로와 학업에 관해서는 부모보다 전공 교수 등 타인의 지지와 격려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6]에서 알 수 있듯이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이 영향을 받는 지지 체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수업 진행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개인화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27]. 그러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대학의 동아리 활동, 상호작용과 진로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합리적 설명만이 계획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었지만[12,13]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결정효능감이나 진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8,29]. 성인기의 시작인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덜 의존적이며 부모의 지도나 가치에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는다. 부모와의 애착과 지지, 끈끈한 관계가 오히려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 분화 수준을 떨어뜨려 진로탐색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30]는 후기 청소년기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 즉 직업정보수집과 목표설정, 계획수립과 자기평가에 영향을 주었고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효능감 중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Park[31]의 연구와 같은 결과인데 평가적 지지는 칭찬,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하게 해주는 긍정적 행위를 제공하는 것이다[15].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환경의 긍정적 지원은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32].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결정과 관련된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가 아닌 자신에 대한 인정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불안한 상황에 맞서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내재적 동기와 효능감 등 내적 자원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내적 건강성을 위한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체계의 건전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표집의 결과 1학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의 비율을 고르게 배정하여 학년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필요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 References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1968.
- [2] D. E. Felsman, D. L. Blustein,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4, No.2, pp.279-295, 1999. DOI: <https://doi.org/10.1006/jvbe.1998.1664>
- [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3310861320878>
- [4]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2>
- [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97.
- [6] G. Hackett,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w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
- [7] S.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of Adolescent Education, Seoul, Korea, pp.43-45, 2017.
- [8] J. Y. Kim, K. H. Le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1-25, 2014.
- [9] R. W. Lent, S. D. Brow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6, No.1, pp.6-21, 2008.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7305769>
- [10]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G "Contextual support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p.36-49, 2000.
- [11] Y. H. Choi, H. J. Mo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s' discipline style scale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4, No.2, pp.29-53, 2020. DOI: <https://doi.org/10.5718/kcep.2020.14.2.29>
- [12] S. H. Jang, S. K. Yoo,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purpose/meaning, parental support and university senior job search behavio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35, No.1, pp.1-17, 2014.
- [13] S. K. Ha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on 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6, pp.339-368, 2014.
- [14] K. Y. Suh,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explor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4, pp.095-114, 2019. DOI: <https://doi.org/10.35273/jec.2019.9.4.005>
- [15]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Nursing, Seoul, Korea, 1985.
- [16] S. C. Whiston, B. K. Keller,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2, No.4, pp.493-568, 2004.
- [17] E. M. Lim, "Exploring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process and media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2, pp.447-466,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2.201104.447>
- [18] A. Hirschi, S. G. Niles, P. Akos, "Engagement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the development of choice decidedness and congruence", *Journal of adolescent*, Vol.34, No.1, pp.173-182, 2011.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9.12.009>
- [19]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2, No.2, pp.170-189, 2004.
- [20] Y. S. K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of Social Work, Seoul, Korea, pp.76-80, 1995.
- [21]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22] E.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of Psychology, Seoul, Korea, p.124, 2001.
- [23]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24] J. S. Kim, J. Y. Jung, "The medit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bonding relation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9, No.4, pp.31-50, 2012.
- [25] R. Kim, H. J. Moon,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prospective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8, No.2, pp.67-82, 2019.
- [26] J. K. Back, J.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2, No.2, pp.79-98, 2019.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9.06.32.2.79>
- [27] G. S. Kim, Y. J.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9, pp.644-651, 2021.
- [28] S. R. Kim, J. C. Le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9, No.2, pp.393-407, 2007.
- [29] H. J. Lim, J. H.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and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Vol.12, No.2, pp.143-161, 2022.
- [30] J. E. Yoon, "Parents'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ditating self-differenti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4, pp.143-161, 2022.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4.26>
- [31] J. E.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2006.
- [32] E. L. Deci, R. M. Ryan,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Vol.49, No.3, pp.182-185, 2008.  
DOI: <https://doi.org/10.1037/a0012801>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1999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

최 윤 희(Yun-Hee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이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관심분야>

부모자녀관계, 아동발달과 환경